

모아이스 AI/LLM 엔지니어 커버레터

강태욱

모아이스의 AI/LLM 엔지니어 포지션을 보며, 이 역할의 핵심은 단순히 골프 도메인 챗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프픽스가 축적한 스윙 영상, Pose 시계열 데이터, 유저 히스토리, 골프 과학 지식을 개인화된 코칭 경험으로 바꾸는 제품 엔지니어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특히 “모아이스의 첫 AI/LLM 엔지니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기보다, PO·기획자·동료 개발자와 함께 어떤 AI 기능이 실제 사용자에게 가치가 있는지 정의하고 빠르게 검증한 뒤 프로덕션 운영까지 책임지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Flutter 기반 멀티플랫폼 제품 개발에서 출발해 AX/AI Agent Engineering과 LLM 제품 운영까지 확장해 온 Product Engineer입니다. 6년 동안 모바일, 데스크톱, TV, 스마트 글래스, BLE 디바이스, 실시간 음성·자막, 채팅, 영상/미디어 앱, 데이터 수집·검증 파이프라인, AI 상담 서비스까지 제품의 여러 접점을 다뤄 왔습니다. 최근에는 Claude Code, Codex CLI, Gemini CLI 기반 Agent/Skill/Workflow, MCP/Tool Calling, Structured Output, PromptOps, RAG, LangChain/LangGraph, LLM 평가 하네스를 실제 업무와 제품 기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이스에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은 제품 AI 기능을 End-to-End로 주도하는 실행 방식입니다. 플레드에서는 Next.js, FastAPI, GCP, Gemini, Vector DB, RAG, Tool Calling, SSE Streaming 기반 AI 상담 서비스 구조를 개선했고, LangChain/LangGraph로 검색, 도구 호출, 응답 생성, 실패 처리를 분리했습니다. 질문 의도, 검색 근거, 도구 실행, 답변 형식, 실패 처리까지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보고 설계했습니다. 이 경험은 골프픽스에서 유저의 스윙 히스토리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용자에게 어떤 조언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AI 코칭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RAG와 장기 메모리, 사용자 프로필을 제품 구조로 다루는 경험입니다.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 Memoriz에서는 사진, 장소, 일정, 감정 기록을 공동 데이터 원장으로 축적하고, AI 검색·요약·추천에 다시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사용자의 기록을 단발성 입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맥락으로 보고, 어떤 정보는 검색 대상으로, 어떤 정보는 프로필 요약으로, 어떤 정보는 추천과 대화의 근거로 사용할지 나누는 방식입니다. 골프픽스의 “당신은 이런 타입의 골퍼입니다” 진단 프로필과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AI 코치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윙 Pose 자체를 만드는 모델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 데이터 위에서 LLM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작동하는 제품 계층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AI 기능의 운영 품질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저는 프롬프트를 단순 문자열이 아니라 version, status, metric, rollback이 있는 운영 자산으로 관리하는 PromptOps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A/B 평가, factual guard, human review, 실패 케이스 기록, drift monitor, lesson store를 연결해 모델이나 프롬프트 변경 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모아이스 공고에서 응답 품질, latency, cost, failure case를 측정하고 개선 루프를 구축하는 업무가 명시된 점도 이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AI 코칭은 한 번 그럴듯한 답을 하는 것보다, 틀린 조언을 줄이고 사용자가 다시 찾을 만큼 일관된 경험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팀에서 처음부터 셋업하고 끝까지 운영해 본 경험입니다. 엑스퍼트아이엔씨에서는 AI 스마트 안경 제품군의 앱 리드를 맡아 모바일, 데스크톱, 스마트 글래스 앱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관리했습니다. BLE/GATT, WebSocket, STT, Opus, Android Kiosk Mode, OTA, ADB Factory 운영 자동화까지 맡으며 제품 기능과 현장 운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컨설턴트로 일할 때도 OTT, TV 앱, 실시간 주문, 채팅, 커뮤니티, 숏폼 영상, DRM/Video Player 등 서로 다른 도메인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 개선, 안정화, 배포 자동화를 수행했습니다. 모아이스처럼 글로벌 B2C 앱과 B2B SDK, 오프라인 스포츠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제품 전체의 제약을 보며 AI 기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골프픽스의 기존 스윙 분석 결과, 유저 히스토리, Pose 시계열 데이터, 골프 과학 지식, 서비스 내 대화/진단 UX를 빠르게 파악하겠습니다. 이후 작은 PoC부터 시작해 세 가지를 우선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저 프로필·스윙 히스토리·대화 기록을 어떤 단위로 저장하고 검색할지 정하는 memory/RAG schema입니다. 둘째, AI 코치가 답변할 때 반드시 근거로 삼아야 하는 골프 지식, 사용자 데이터, 최근 스윙 진단 결과의 우선순위입니다. 셋째, 응답 품질, latency, cost, 실패 케이스를 기록하고 개선하는 eval/observability 루프입니다.

모아이스가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누구나 자신만의 코치를 가질 수 있는 미래”는 LLM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와 대화 맥락을 존중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개선 가능한 운영 지표를 남기고, 제품 안에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코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AI Agent와 제품 엔지니어링을 함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골프픽스의 개인화 AI 코치, 진단 프로필, 대화형 코칭 경험을 프로덕션에서 운영 가능한 기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